| 불자 세상보기 |

제대로 벌어서 제대로 쓰자



석길암 교수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학부

개 같이 벌고 정승 같이 쓰는 건 정승처럼 일하는 사람에게 적합
개 같이 버는 동안 습관은 쌓인다

재벌 자제들 승무원, 종업원 폭행은 잠깐 드러나는 어이없는 세태 아냐

"1/4은 구제에 써라" 善生거사 말씀 현대 자본가들에게 필요한 메시지

"개 같이 벌어서 정승 같이 쓴다."

비천하게 벌더라도 쓸 때는 떳떳하게 그리고 보람 있게 쓴다는 속담이다. 악착 같이 돈을 버는 사람들, 돈에 포한이 생겨서 꼭 돈을 벌고야 말겠다는 사람들이 다른 일들은 제쳐두고 돈 버는 일을 최우선으로 할 때 흔히 뇌까리는 말이다. 혹은 그 돈 그렇게 벌어서 어디에 쓸 것이냐고 묻는 이들에게 돈을 최우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는 흔한 답변이기도 하다.

그런데 정말 그런 그럴까? 개 같이 벌어서 정승 같이 쓸 수 있을까? 천만에 만만에 말씀이다. 개 같이 벌어서 정승 같이 쓰는 사람은, 개 같이 벌 때에도 늘 정승이었던 사람뿐이다. 그것도 천의 하나, 만의 하나의 일뿐이다.

개 같이 버는 동안에 개 같은 습관이 차곡차곡 쌓인다.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습관이 온 몸에 온 마음에 차곡차곡 쌓여서 어느새 성격이 되어버린다. 그 성격으로는 정승같이 쓰고 싶은 생각이 간절해도 그럴 수 없다.

'개 같이 벌어서 정승 같이 쓴다'는 말을 다시 생각해보자. 이 말은 천한 일 귀한 일 가리지 않고, 정승처럼 가치 있게 일하고 보람 있게 일하는 사람에게나 적합한 말이지, 그야말로 물불 가리지 않고 버는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이다.

도둑질하던 심보로, 도둑질한 돈을 어떻게 정승 같이 쓸 수 있을까. 개 같이 벌어서는 정승 같이 쓸 수 없다. 정승 같이 벌 때만 정승 같이 쓸 수 있는 법이다. 버는 것도 가치 있고, 떳떳하고, 보람 있게 벌어야만 하는 것이다.

최근 탄핵 정국에 온통 쏠린 관심을 뚫고서 소위 가진 집 자식들의 행세가 언론을 오르내리고 있다. 엄동설한에 불난 집 앞에서 덥다고 부채질 하는 꼴이니,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다.

비행기를 타면 승무원을 폭행하고, 술집에 가면 술집 종업원을 폭행한다. 그뿐인가? 게다가 아직 여운이 가시지 않은 땅콩 회항까지.

그냥 잠깐 드러나는 어처구니없는 세태로만 받아들일 일이 아니다. 가끔 벌어지는 못된 송아지만의 일이라기에는 너무 잦고, 그러고도 당당하기까지 하기 때문이다.

죄송하다는 사과 한마디조차 쉽게 나오지 않는 소위 2세의 철면피는, 그들이 가진 것이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끊임없이 떠올리게 한다. 잘못된 방법으로 버는 동안 쌓이고 쌓여서 성품이 되어버린 습관의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만 보인다고 말하면 심하게 오버하는 것일까?

〈불설선생자경(佛說善生子經)〉에서 부처님은 "만일에 구하여서 재물을 얻으면, 마땅히 나누어서 네가지 몫을 만들어라. 한 몫은 옷과 밥에 이바지하고, 두 몫은 이익 얻을 밑천으로 삼고, 한 몫은 간직하여 저축했다가, 재난이 있을 때에 구제하라"고 가르친다.

선생(善生)이라는 거사의 아들에게 재물을 유지하는 방법을 가르친 내용 중의 일부이다. '거사'라는 호칭은 부처님 시대의 인도에서 자산을 축적한 자산가이므로, 요즘 식으로 말하면 자본가에 해당한다. 흔히 장자(長者)라고도 불리는 이들이다. 1/4은 반드시 재난이 있을 때 사람들을 구제하는데 사용하라는 말씀은, 소위 자본가라는 이들이 귀담아 들을 만하다. 나누고 베푸는데도 충분히 재물이 사용되어야만, 가진 재물을 유지할 수 있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재물이 나누고 베푸는데 사용되기는커녕 과시하고 무시하는데 공공연히 사용된다면, 그것이 복의 원천일까 아니면 재앙의 원천일까?

社說

탈종교화 극복할 百年大計 기대한다

조계종이 종단 미래종책을 연구하는 종령기구 '백년대계본부'를 설립했다. 기존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와 '불교사회연구소'를 통합하고, 각종 위원회를 포함시켜 한국불교 발전을 이끌 '싱크 탱크(Think Tank)'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다.

조계종 중앙종무기관은 그동안 미래 전략보다는 주로 현안을 다루는 부서들로 운영돼 왔다. 종단 또는 사회적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TF팀을 구성해 대응했지만 주먹구구식이라는 지적을 피하지 못했다. 따라서 한국불교 위기설에도 이를 헤쳐 나갈 지혜를 모으기는 역부족이었다.

이번에 설립된 백년대계본부는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누차 강조해온 '5°의 변화'에 가장 적합한 기구다. 그렇기에 그 어느 조직보다도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만 한다. 불자들은 현재 한국불교가 겪고 있는 위기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진정한 '백년대계'를 원한다. 백년대계본부에 거는 기대가 클 수밖에 없는 이유다.

다만 백년대계본부가 제34대 집행부의 임기 마지막 해에 구성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종교뿐만 아니라 일반사회서도 대부분의 정권이 임기 말미 레임덕에 빠지고, 개혁 의지가 급격하게 꺾이는 현상은 역사서도 확인 가능하다. 전철(前轍)을 답습하지 않으려는 굳건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올 연말에 출범하는 차기집행부가 이어갈 미래전략을 마련하기엔 분명 부족한 시간이다. 그렇다고 서둘러선 안 될 일이다. 완벽한 기초공사에 심혈을 기울여 대중의 신뢰를 얻는 게 먼저다. 그로부터 탄생한 백년대계가 '탈종교화'라는 한국 종교지형을 되돌리는 혜안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문화재청 不通 정책도 국정농단

새해 신년기자회견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이례적으로 문화재청을 비판했다. 이런 비판이 나온 것은 곪을 대로 곪았던 문화재청의 불통(不通)의 문화재 정책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온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대표적인 것이 문화재청이 '사찰 문화재관람료 징수 실태조사 연구용역'에 관련된 문제다. 이 연구용역은 (사)녹색연합부설녹색사회연구소가 지난해 4월 낙찰받아 연구를 진행했다. 하지만 정착 사찰 문화재관람료 징수에 있어 당사자인 조계종과 해당 사찰과는 어떠한 협의와 사전 통지도 없이 연구가 진행됐다.

지난해 11월 연구용역 사실을 안 조계종이 11월 9, 30일 공문을 보내 연구용역을 폐기할 것을 요구했지만 모르쇠로 일관했다. 올해 1월 5일 조계종 국장 스님들이 문화재청장에 항의 방문하고 항의서한을 접수하고서야 1월 9일 매우 불성실한 답변을 회신했다.

답변도 가관이다.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어쩔 수 없다"는 변명과 "문화재관람료 개선에 관한 연구·검토 차원에서 실시한 것임을 참고해 달라. 향후 문화재관람료 관련 사항은 조계종 총무원 및 해당 사찰과 적극 협의하겠다"는 읍소였다.

문제는 '연구는 연구일뿐 오해하지 말라'는 식의 문화재청의 태도다. 정책에 반영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연구를 국민에 혈세를 들여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도 과업지시서까지 연구기관에 제시해서 입맛에 맞는 연구 결과를 유도하려 한 불순한 의도의 연구를. 대한민국 국가예산이 그렇게 풍족한가. 국정농단은 최순실 씨만 하는 게 아니다. 문화재청의 관료주의 행정도 바로 국정농단이다.



발언대

탈종교 시대, 새로운 종교 지형

윤승용 한국종교문화연구소 이사

통계청은 지난해 12월 19일, 2015년 종교인구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종교인구 조사는 통계청이 1985년부터 매 10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조사이다. 이번의 조사 결과를 통해, 한국사회에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종교지형이 형성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었다. 무종교인이 전체 56.1%로 종교인구보다 13%나 많고, 개신교가 불교를 추월하여 1위의 종교가 됐다. 종교 인구는 2,155만 4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43.9%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10년 전인 2005년의 52.9%에 비해 무려 9%, 약 300만 명이 감소한 것이다. 그 감소분은 불교의 종교인구 감소분과 대체로 일치한다.

종교별로 보면, 개신교가 가장 많은 967만 6천 명(19.7%)으로 10년 전에 비해 1.5%, 125만 명이 증가하였으며, 불교는 761만 9천 명(15.5%)으로 10년 전보다 7.3%, 296만 9천 명이 감소했다. 천주교는 389만 명(7.9%)으로 10년 전보다 2.9%, 112만 5천명이 감소하였다.

이번 조사의 결과가 다른 종교 조사에 비해 양적인 측면과 전통별 각론에서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종교인구의 전반적인 추세에서는 별반 차이가 없다. 최근의 여러 종교조사를 보면, 종교의 전통적인 역할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종교의 사회활동에 대한 기대 수준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가 현저히 나타난다. 또 개인주의적 성향의 증가로 종교집단에 얽매이지 않으려는 경향도 분명히 드러난다.

지난 10년 동안 한국인은 상황 속에서 자신의 삶을 정의하기도 쉽지 않았고, 향후 미래를 기약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렇다고 기성 종교에 자신의 불안 해소와 미래 희망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인가 하면 그렇지도 않다. 일부에서는 기성 종교를 '반기독교'나 '비구 독재'로 비하하고, 심지어는 그 운영방식을 비꼬아 '영혼주식회사'라고 질타하고 있지 않는가. 이에 일부 종교인들은 자신을 보호하고자 스스로 종교적 대안을 찾아 나섰고, 그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영성과 근본주의'였다. 전자는 제도종교를 해체하는 기능을 하였고 후자는 제도종교를 더욱 강화하는 역할을 했다.

개인적 피난처를 찾아 스스로 해결해 보겠다고 나선 개인에게는 탈근대의 영성이, 집단적 피난처를 찾고 있던 개인에게는 이성적 근대성에 저항하는 비합리적인 근대성을 가진 근본주의가 선택됐다. 이후 영성은 명상이나 수련을 강조하는 불교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제도종교와 관련된 종교인구의 감소시키는 핵폭탄이 되었고, 근본주의 신앙은 개신교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제도종교를 더욱 강화시켜 신앙집단을 통한 피난처가 되었다.

여기에 더하여 2000년 초에 위기를 맞은 한국 종교의 내부 분열도 큰 영향을 주었다. 2000년대 초부터 종교 내부의 개혁을 놓고 종교의 구성원들이 분열되기 시작하였다. 이때 핵심성원들은 자기 조직을 지키고자 자기 신앙과 교리에 더 집착하는 근본주의를 강화하였고, 주변성원들은 종교 조직에서 떨어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명상과 수련과 같은 영성종교에 탐닉하게 되었다. 전자가 종교공동체를 철저하게 관리하는 개신교의 대형교회 사례라면, 후자는 불교공동체에 자기 위치가 없는 재가 신도들의 사례다.

개신교는 근본주의 신앙을 가진 대형교회 중심으로 종교인구가 증가한 반면, 불교는 영성종교에 탐닉한 주변신도들이 제도종교를 이탈해 종교인구가 크게 감소했다. 그 결과 한국사회에 새로운 종교지형이 등장한 것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혜원 편집인 : 혜도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현대불교신문
구독 안내

불교의 현대화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올곧게 지탱하는 힘

불교의 생활화
생활속의 지혜와 자비로 꽃피는 가르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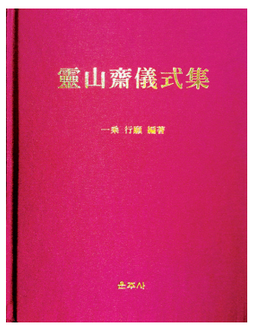
불교의 세계화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현대불교신문사는
생명 있는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해
험한 길일수록 먼저 달려가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과 함께 하십시오

문의 전화 : 02)2004-8200

靈山齋儀式集
영산재의식집
일승 행원 편저 | 국배판 | 446쪽 | 40,000원



영산재 각 의식마다 소리의 길이와 높낮이 등을 그린 채보를 수록하여, 범패를 배우는 초보자들이 보다 쉽게 익힐 수 있도록 하였다.

영산재는 2,600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이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던 모습을 재현한 것이라는 설과, 위나라 조식이 천태산에 오르자 범천에서 오묘한 소리가 났고 그 소리에 맞춰 고기떼가 춤을 추자 그 소리를 모방해서 범패를 만들었다는 설이 있다. 영산재는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한국 불교의 귀중한 자산일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전통예술이자 인류가 보존해야 할 문화유산으로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범패는 구전으로 전승되는 관계로 한 구절을 익히려고 해도 그 소리를 수십 수백 번 반복해서 들어야 하고, 게다가 전승자마다 소리가 조금씩 달라서 범패를 배우기는 매우 어렵다.

이 책은 실제로 저자가 범패를 배우면서 소리를 잊지 않고 익히고 공부하기 위해 한 구절 한 구절 일일이 채보한 것들을 모아 다시 편집한 것이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범패를 배우는 이들이 좀더 쉽게, 그리고 정확하게 익힐 수 있기를 기대한다. 시련, 대령, 관욕, 조전점안, 신중작법, 괘불이운, 영산작법(상단권공), 식당작법, 운수상단권공, 중단권공, 신중퇴공, 관음시식/전시식, 봉송 및 소대의식까지 의식 내용과 그에 따른 채보를 수록하여 범패 전승의 현대화를 꾀하였다.

불서총판 운주사 02-3672-7181
010-9726-0626 (저자)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

신간

제 1편 치병편
제2편 치료술
제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4편 수행편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범인(일반인)은 세월과 더불어 생명에너지(정기)를 다 유실하므로 정신이 흐려져 결국 치매에 걸리거나 병들어 생을 힘들게 마감하게 된다. 그러나 지각 있는 사람은 세월과 더불어 생명에너지를 모아가므로 날로 정신력이 강하여져 맑고 선명한 의식 상태, 앉은 채로 육신에서 영혼을 이탈 시킬 수 있다. 즉 다시 말해서 폼 나고 멋있게 죽을 수 있다. 이 의서는 임상실험을 통하여 가히 늙거나 병들지 않고 병이 들었더라도 저절로 낫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명확히 제시해 놓았다.

– 지은이의 말 중에서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민중의술의 특징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